

요약 보고서 (Executive Summary)

현행 교회헌법과 총회 규정에는 멀티사이트(multisite) 교회 구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2024 년 총회에서 구성되었다. 이 특별위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제도에 부합하는 모델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교회가 멀티사이트 구조로 전환할 때 사용할 “로드맵”을 마련하며, 필요한 교회헌법 개정을 권고하도록 위임받았다. 본 보고서는 ‘멀티사이트’라는 용어가 단일한 모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간에 모이는 하나의 교회’에서부터 ‘여러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 나아가 ‘분산형 교회 네트워크 또는 교회 연합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개념임을 밝힌다. 이러한 모델은 운영, 예산, 교적, 설교,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조직 요소에 의해 구분된다.

본 보고서는 멀티사이트 교회의 필요성을 수적 성장에 대응하는 방식, 새로운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하는 수단,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또한 멀티사이트 모델은 다양성과 선교를 위한 교회 개척의 전략적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나 서로 다른 문화권의 공동체도 기존 교회 구조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 속에서도 개혁주의 교회론이 여전히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인 복음의 순수한 선포, 성례, 그리고 신실한 권징은 중앙에서 통제되거나 스크린이라는 매체를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중요한 구분 가운데 하나는 ‘이미 조직된(organized) 교회’와 “개척 중인 미조직(emerging) 예배 공동체”의 차이이다. 개척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후원 교회 카운실의 감독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은 성장을 위한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지역 교회가 자치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교회의 권위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나 중앙 조직이 아니라, 선출된 카운실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와 노회를 돕기 위해, 본 보고서는 서로 다른 상황에 맞춘 네 가지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는 성장에 대한 대응, 새로운 지역으로 사역 확장, 쇠퇴한 교회의 활성화, 그리고 다양성과 선교를 위한 교회 개척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로드맵은 초기 단계에서 노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명확한 목양적 감독을 세우며, 재정과 교적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교회헌법 제 35 조에 대한 보칙을 제안한다. 이 보칙은 모든 멀티사이트 운영 시 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목양적 책임과 교회 질서의 명확성을 위해 각 사이트별 교적부를 만들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특별위원회는 멀티사이트 교회 형태가 개혁주의 교회제도에 깊이 뿌리를 두고 지역 교회의 건강을 지향할 때 CRC 교단 안에서 충분히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